추석 맞이 농축수산물 최대 30% 할인

농식품부 · 해수부, 장바구니 물가 안정 할인행사 진행

내달 12일까지 대형마트 · 온라인몰 · 전통시장 등 참여

추석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20~3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할인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수산물 구입 시 20~30% 할인을 지원한다. 최근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 20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지에스(GS) 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한 13개 오프라인 업체와 에스에스지닷컴(SSG.com), 쿠팡,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쇼핑몰, 포항시산림조합, 군산로컬푸드직매장 등 25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이 참여한다.

정부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1인당 할인 한도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로컬푸드 직매장·전통시장 3만원)으로 상향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은 1인당 2만원, 로컬푸드 직매장은 3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온누리 전통시장, 온누리 굿데이 등 전통시장 온라인몰 3곳과 전통시장 배달앱 '놀러와요시장'에서는 구매 시 1인당 3만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2만~4만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는 수산물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맞이 농축산수물 할인대전을 통해 가계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생활물가에 민감한 주요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살피고,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신동진쌀 2차 특별 할인판매

오늘 농협 전북본부 온라인지역센터 라이브커머스 통해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5일에 이어 쌀 소비촉진 및 판매확대를 위해 12일 오전 11시 농협전북본부 온라인지역센터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전북 신동진쌀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도내에서 생산되고 가공되는 한국농협김치의 배추김치와 묵은지도 같이 할인판매를 진행하여 치솟는 물가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특별판매에서는 군산 대야와 회현에서 생산된 신동진 쌀과 한국농협김치에서 생산된 김치를 20%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방송 당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무료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온라인 할인판매가 쌀 소비촉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는 판매채널 다변화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북농협은 올가을 벼 수확기에 산지 매입 여력이 악화되는 상황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쌀 소비촉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중기 '나라바이오' 일자리 으뜸기업 대통령상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 선도기업인 나라바이오㈜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산에 소재한 나라바이오㈜(대표이사 김일호)는 친환경 농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 가슴이 따뜻한 기업'이란 경영철학을 갖고 지난 2018년 4월에 설립됐다.

'유황'과 '천연미생물'을 결합해 개발한 '모두싹' 대표 브랜드 제품으로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및 작물보호제, 4종 복합비료, 토양개량 및 증수 효과가 뛰어난 '땅부자' 비료, 축산 및 애완용 유황단미사료 등 약 20품목을 생산, 공급해 농축산 농가 및 귀농인, 텃밭 및 도시농업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나라바이오㈜는 전북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기술개발, 공정개선, 마케팅 등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을 통해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농자재를 전문생산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김일호 대표는 "전국의 수많은 업체 중에 당사가 최종 선정, 대통령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다"며 "앞으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직원복지, 전직원 정규직,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등에 더욱 힘쓰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뉴시스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는 11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협 창립 제61주년 기념식에서 전국 농협사무소의 최고의 영예인 총화상을 수상했다.

전국 농협사무소 '최고의 영예'

NH농협 고창군지부 '총화상'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문구)는 11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에서 열린 농협 창립 제61주년 기념식에서 전국 농협사무소의 최고의 영예인 총화상을 수상했다.

총화상은 농협중앙회가 전국의 범농협 사무소를 대상으로 친절봉사, 인화단결, 대외농정 및 사회공헌활동, 사업추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중 최우수 사무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농협에서는 최고로 권위있는 상이다.

NH농협 고창군지부는 지난해 전국 사무소 종합업적평가 1위를 달성했고 민원부문 Clean인증사무소로 선정되어 대고객 경영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코로나-19 방역지원활동, 농촌일손돕기, 이웃사랑 실천 나눔 행사, 지역장학기금 조성 등 각종 기부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했다.

이문구 NH농협 고창군지부장은 "고창군지부가 문을 연 이래 처음으로 총화상을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원해주신 군민과 고객, 지역 농·축협 임직원 여러분들께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조합원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는 든든한 고창군 금고은행으로서, 지역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구현을 위해 고창군지부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보이스피싱 중간 전달책 검거 결정적"

전은 무주지점 김영애 차장, 무주경찰서로부터 감사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무주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애 차장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과 중간 전달책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주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1일 은행에 따르면, 김영애 차장은 지난 8일 지점을 방문한 한 고객이 창구에서 현금 2700만원을 인출하던 중 통화하며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또 진행된 상담 과정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이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고객에게 안내하고 바로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점 주변에서 잠복하면서 은행 측과 긴밀하게 상황을 공유했고, 지점 직원들은 중간 전달책 검거를 위해 상황을 연출하는 등 범인 검거에 주력했다.

이후 경찰은 인근 커피숍에서 현금을 받으러 나타난 20대 보이스피싱 중간 전달책을 확인하고 곧바로 검거했다.

김 차장의 눈썰미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 2700만원의 지켜낼 수 있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 공정거래 조성 기대"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 실시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기업거래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약속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현재 여야가 협치의 상징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납품단가연동제 조기입법을 합의한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입법에 발맞춰 시범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시스